

전남 '억대 富農' 크게 늘었다

"아무리 FTA(자유무역협정)가 무섭다고 해도 우리는 이겨낼 겁니다." 지난해말 현재 연간 총 매출이 1억 원을 넘는 전남 도내 '1억 부농 그룹' 가입 농가가 865가구로 지난 2005년 599명보다 44.4%나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연 매출 1억 이상 농가 865가구 전체의 0.4%...나주시 가장 많아

전남도는 올해 도내 전체 농가 19만4천565가구를 대상으로 2007년 수입 현황을 조사한 결과, 연간 매출 1억 원 이상 농가가 전체의 0.4%인 865가구로 조사됐다고 27일 밝혔다. 도내 농가 1천 가구 가운데 4가구는 1억 이상 매출을 올리고 있는 것으로, 이는 전국 농가 매출 평균(2005년 기준) 2천650만원의 4배에 달한다.

51가구 ▲영광 45가구 ▲장흥 44가구 ▲영암 44가구 ▲무안 44가구 ▲담양 42가구 ▲해남 42가구 ▲화순 41가구 등의 순이었다.

10억 이상도 9가구

분야별로는 축산이 전체의 55.4%인 479가구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곡물 149가구(17.2%) ▲채소 96가구(11.1%) ▲과수 58가구(6.7%) ▲가공·유통 39가구(4.5%) ▲특용작물 30가구(3.5%) ▲화훼 14가구(1.2%) 등이었다.

매출 규모별로는 1억이상~2억미만이 667가구(78.3%)로 가장 많았으며, 2억이상~3억미만 98가구(11.3%), 3억이상~5억미만 48가구(5.5%), 5억이상~10억미만은 33가구(3.8%)였다. 특히 10억이상 부농은 9가구(1.0%)로 이 가운데 한 축산농가는 돼지 9천400마리를 키워 연간 24억7천400만원의 매출을 올리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또 강진군의 경우 '농업인 부자 만들기 프로젝트'를 가동해 파프리카 재배면적 확대, 양액밭기 재배농가 지원 등으로 지난해 19가구가 새롭게 '1억 부농 그룹'에 가입하게 됐다.

억대 농가들은 친환경 농축산물로 안정적인 판로를 확보했으며, 소비자가 무엇을 원하는지 면밀히 살펴 '맞춤형 생산'을 하고 있다. 특히

전자상거래 등으로 전국적인 생산망을 구축하는 공격적인 마케팅 전략을 구사하는 공통점을 보였다.

친환경 맞춤형 생산

전남도는 이에 따라 고품질의 기술 지도는 물론 유통·가공·컨설팅을 연계한 종합 육성계획을 수립해 '1억 부농 1만 농가' 육성에 기여한다는 계획이다.

정순주 전남도 농업정책과장은 "농가의 소득은 가족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만큼 일반도시민과 직접적 비교는 힘들지만 규모화, 선진화, 유통 신뢰도 향상에 힘써 높은 소득을 올리는 농민이 늘고 있다"면서 "'부자 농가' 육성을 위해 친환경 농업기술 전수 등 현장 밀착형 신기술 보급과 판로 개척에 적극 나서겠다"고 밝혔다.

김주정기자 jnews@kwangju.co.kr

'광주 3·1 만세 운동' 89년만에 재연



1919년 3·1운동 당시 광주에서 벌어졌던 광주 시민·학생들의 만세운동을 재연하는 행사가 89년만인 오는 3월 1일 펼쳐진다. '광주 3·1만세운동 재연행사'에 참가하는 광주 수피아여고 학생들이 28일 학교 안에 있는 '광주3·1만세운동 기념탑' 앞에서 "대한독립만세"를 외치는 리허설을 하고 있다. <관련기사 7면> /니명주기자 mjna@kwangju.co.kr

국정원장 후보

김성호씨 내정

사정 빅4 영남 독식



이명박 대통령은 28일 새 정부 첫 국가정보원장으로 김성호 전 법무장관을 내정했다.

이동관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오후 춘추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김 전 장관이 새 정부가 지향하는 창조적 실용주의에 적합할 뿐 아니라 국정원이 국익을 위해 일하는 순수 정보기관으로 일하는 데 기여할 것"이라며 이 같이 발표했다.

이 대통령은 애초부터 김 전 장관을 국정원장 후보로 검토했으나 국정원장, 법무장관, 검찰총장, 경찰청장 등 이른바 사정기관장 '빅4'가 모두 영남권 인사로 짜여진다는 지적에 따라 백지화했다가 마땅한 인물을 구하지 못하자 다시 김 전 장관으로 급선화한 것으로 전해졌다.

"유류세 3월 초 10% 인하"

연말까지 한시 적용

휘발유와 경유, LPG부탄 등에 붙는 유류세가 올해 말까지 한시적으로 10% 가량 인하된다. 아울러 지난해 말 종료된 임시투자세액공제제도의 일몰도 1년간 연장된다.

최규연 재정경제부 대변인은 28일 정례브리핑에서 "3월3일 열린 예정인 새 정부 첫 국무회의에 유류세 인하 방안을 상정할 계획"이라며 "국무회의를 통과하면 관보게재 절차를 거친 뒤 조속한 시일 내 시행될 것"이라고 밝혔다.

최 대변인은 "유류세 인하 방안은 교통에너지환경세법과 개별소비세법 등의 시행령을 개정해 각 유류에 붙는 세금을 10% 가량 인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현재 휘발유와 경유에는 교통에너지환경세와 주행세·교육세 등을 합해 각각 리터당 745원과 528원의 유류세가 부과되고 있다. LPG부탄의 경우 개별소비세와 교육세를 합해 kg당 316원의 유류세가 부과되고 있다.

남부대학교
전남과학대학

청연한의의원 개원
2008년 3월 1일(토) 13:00~16:00
상무지구 치평동 MK타워 5층
☎ 062) 371-1075~6

민주 '호남 쇄신공천' 칼바람

1차 명단 주내 발표... 탈락자 반발 등 진통 예고

통합민주당 공천심사위원회의 '호남 쇄신공천' 칼바람이 매섭게 몰아치면서 광주·전남 정치권에 파란이 예고되고 있다. <관련기사 3면>

28일 통합민주당 공천심사위원회는 단수 공천신청 지역과 유력 후보가 있는 복수 공천신청 지역에 대한 총선 후보를 이르면 이번 주 내에 발표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또, 아직 면접을 하지 않고 있는 호남지역과 경합지역 공천신청자들의 면접은 1차 발표가 마무리된 뒤 실시키로 했다.

박경철 공심위 후보간사는 28일 브리핑에서 "단수 공천지역과 유력자가 있는 지역의 경우 오늘 오후로 면

접이 마무리된다"며 "내일부터 서류심사 작업과 마지막 심사작업을 거쳐 서너달도 수일 내에 1차 발표가 이뤄질 것"이라고 밝혔다.

이 같은 공심위의 로드맵을 감안하면, 1차 공천 심사에서 탈락할 호남지역 9명의 현역의원(전북 3명, 광주·전남 6명)의 명단은 이르면 내주 주 말에 발표될 전망이다.

이에 따라 당내에서는 공천 배제 대상으로 거론되는 현역의원들의 살생부가 공공연히 나돌고 있는 등 뒤송송한 분위기가

이와 관련, 박 간사는 "어떤 기준을 마련할 것인지에 대한 논의와 기준 마련이 늦어도 29일 중 공심위에서 이뤄질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당 지도부 인사와 호남권 중

진, 참여정부 장·차관 출신 예비 후보들의 수도권 징발설도 확산되고 있다.

박 간사는 이날 "순화규·박상천 공동대표와 그에 준하는 정도의 대표자 및 책임있는 당의 중진들은 사측생의 각오로 수도권에 나서는 '노블리스 오블리주'가 있어야 하는 것 아니냐"고 강조했다.

임동욱기자 tuim@kwangju.co.kr

국회의원 예비후보자 후원회 광고 접수합니다

제43회 광주일보 3월 1일 광주일보 창간 40주년 기념
3·1절 전국마라톤대회

통합민주당
오형근 후보회
광주의 아들!
성형외과원장 오형근씨
대한민국을 사랑하겠습니다.

광신발전의 새로운 추진력, 정책전문가
심재민 후보회
광주광역시 광안구 (통합민주당)
국회의원 예비후보자